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김응상 위원장 귀하

Dear Mr. Chairman, Union of Architects of DPR of Korea

이왕기 / 목원대학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by Lee Wang-Kee

김응상 위원장님, 지난 6월 13일 우리는 정말로 감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50년 묵은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두 정상은 단숨에 만나고 말았습니다. 김 위원장님께서도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벅차 오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소리 높여 울고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움에 지쳐버린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리운 마음조차 타버려 재만 남은 사람들만 가족상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산가족은 아니지만 이산가족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님, 그곳의 건축사정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곳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건설업이 개방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건설과 건축설계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외국의 설계사무소가 서울에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건축교육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 평양의 건설건재대학 건축학과는 이미 1950년대부터 5년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곳에서는 이제야 5년제를 하려고 부산합니다. 4년제를 졸업한 건축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5년제로 개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곳의 모든 학교 건축학과가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그곳에서는 건축가에 대한 인식이 이곳과 다른 것 같습니다. '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굉장하지요. 중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중앙당위원을 겸직하고, 또한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대의원'도 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축가의 지위가 그 정도면 최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께서는 남한의 건설교통부장관 보다 지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국가경제 발전에 건축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건축관련 단체가 3개나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김 위원장님과 같은 예우를 받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직 건축가가 국회의원이 된 적도 없거나 건설부의 수장을 맡아본 적도 없습니다. 건설관련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건축가가 직접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건축관련 공무원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건축가는 기껏해야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뿐입니다. 더구나 전 건축가동맹중앙위원장이었던 고 김정희 선생의 '평양복구계획도'와 선생이 생전에 쓰던 '설계용구'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건축가에 대한 예우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님, 들은 얘기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건축에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1992년에는 '건축예술론'을 저술하여 건축가들에게 지침을 주기도 하였다지요? 김 국방위원장께서는 일찍부

터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적 측면에서 건축의 역할과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건축의 기술적인 측면보다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상이 그 정도로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울에 퇴폐적인 건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건축도 많이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김 위원장님 안타깝게도 이곳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토가 온통 건축물로 꽉 채워져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곳은 여기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지난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을 보고 이산가족 상봉도 곧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고, 머지 않은 장래에 남북의 건축인들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친김에 건축인들이 만나야하는 핑계와 해야할 일들을 몇 가지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건축용어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50년 이상 서로 교류를 끊고 지내오다 보니 적잖게 서로 다른 건축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문이든 가장 기본은 용어입니다. 같은 민족이 같은 문화를 공존하면서 서로 다른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건축의 발전과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건축용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건축인들끼리 서로 상대지역의 건축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건축은 다른 학문과 달리 현상적입니다. 보지 않고 말이나 그림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지적에 두고도 서로의 건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상대방 건축을 “체제를 과시하는 건축”, “착취적이고, 반동적인 퇴폐건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을텐데 만나기도 전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상호 건축기술 교류를 통하여 서로 선진기술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건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비록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철근콘크리트로 105층을 설계, 시공한 경험으로 미루어 그곳의 기술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한때 소련과 교류를 통하여 한대(寒帶)지방 콘크리트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부분에서 기계화, 규격화가 되어 있고 해외에서의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장점을 교류를 통해 주고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는 건축문화재와 관련된 학술교류와 답사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교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 건축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곳의 역사적 건축물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북쪽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쪽 중심의 건축 역사를 공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그쪽도 같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역사분야의 용어도 서로 달리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만나서 풀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방이후 지금까지 많은 건축문화재를 복원·수리하면서 기술도 많이 축적되었을 것입니다. 서로간의 문화재기술도 교류를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장님, 만나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제를 정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고, 건축인들이 서로 왕래하거나 일정기간 머물면서 교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제3국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북 교류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 중 네 번째 항목을 되새겨봅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에서 남북건축이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이후 장관들이 만났고, 이산가족상봉과 직통전화도 다시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남북의 건축계가 만날 차례입니다.

김응상 위원장님, 상명한 적은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일찍이 일본에서 건축공부를 하시고, 해방과 더불어 고향 평양에 돌아가 국가건설에 전심전력으로 이바지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적으로 남북 건축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번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김 위원장께서 연로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셔서 우리 함께 만나길 기원합니다. 김응상 위원장님!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囍